

코로나 락다운과 지옥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예수 그리스도

마1:18-25

2020년 초반부터 코로나 19, 코비드 19 발병과 확산으로 인해 온 세상이 고통을 겪고 있다. 예상과 달리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대다수 유럽 국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갇혀 지내야만 하는 상황이 이런 국가들에서 발생하였다.

이런 조치를 영어에서는 락다운이라고 한다(록다운).

원래 영어 단어 락다운(Lockdown)은 움직임·행동에 대한 제재를 뜻한다. '이동제한령'이나 '봉쇄령'의 뜻으로 쓰이며,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자주 등장하게 됐다. 공장, 업체, 가게를 폐쇄하는 '셧다운(Shutdown)과 비교할 수 있다.

영국 콜린스 사전은 2020년 올해의 단어로 락다운을 선정했다.

11월, 12월이 되면서 코로나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자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코로나 락다운을 실시하고 여기에는 심지어 통행금지도 포함된다.

코로나 상황: 현재까지 7520만 확진(1%), 167만 사망

우리나라 지난 며칠 동안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 3단계 락다운 가능성

나의 생각: 이것은 전염병이므로 일단 국가의 의료 체계를 믿고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비대면 예배가 힘들고 괴롭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질병 퇴치를 위해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부가 코로나를 정치적 의도로 사용하려는 듯한 움직임도 감지가 된다. 그러나 전염병 문제이므로 일단 적극적으로 시책에 협력하는 것이 좋은 시민으로서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는다.

여하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비드 19로 인해 락다운을 겪으며 고통을 당하고 있다.

미국도 사정이 만만치 않다. 큰 딸, 막내딸 각각 아들, 딸 하나씩, 밖에 나가지 못하니 참으로 고통이 심하다. 올해 태어난 막내 손자는 한 번도 밖에 나가지 못해서 엄마 아빠 누나 외에는 그리고 카톡으로 매일 보는 할머니 외에는 다른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갇혀 지내는 가운데 큰딸이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 주었다. “이렇게 얼마 동안 갇혀 지내는 것도 이처럼 힘든데 지옥 불속에 영원히 갇혀 지내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것을 생각하고 영원히 지옥을 벗어나 이런 질병과 고통 그리고 락다운이 없는 천국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7년 환난기, 천년왕국, 아마겟돈 전쟁, 신자의 부활, 불신자의 부활 등을 물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12월 25일은 전 세계가 예수님의 탄생일로 여기고 성탄절을 지킨다.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 않으므로 성탄절 트리, 장식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또 12월 25일은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다.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10월 초중순경 장막절 시즌에 이 땅에 태어나시고 33년 반을 사신 뒤 장막절에서 6개월 지난 뒤 지키는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초실전에 부활하시고 40일 지나서 승천하셨다.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누구보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뻐한다. 그래서 오늘은 < >, 하나님, 지옥의 현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1.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다(창1:1).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창1:26-27). 즉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 사람이 타락하면 짐승처럼 되기 쉽다. 어떤 사람이 짐승과 같은가? 모든 것이 그냥 생겼다고 믿고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은 뇌도 못 본다. 그러나 뇌가 있지 않은가?

가만히 우리 몸을 보고, 우주 공간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라. 창조 세상을 보라. 시간이 지나면서 돌덩어리가 이런 것들로 변한다고 믿는 것은 실로 보통 믿음이 아니다. 그런 일은 이 우주 공간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 심지어 그가 사용하는 휴대폰, 자동차, 집, 식기, 의자, 다 누가

설계해서 만든 것이다. 그냥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휴대폰, 자동차, 집, 식기, 의자 등을 설계하는 사람은 그냥 생기는가? 수많은 별들이 그냥 생기는가? 몸 안의 수많은 세포들이 그냥 생기는가? 그냥 생기거나 원래부터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을 믿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보다 더 확고한 믿음을, 불신

2.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 정의롭고 공의롭다. 하시는 모든 것이 올바르다.

Justice, righteousness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도 법무부가 있다. 영어로는 Dept. of Justice, 정의를 집행하는 부서, 여기에 검사들이 소속되어 있다.

또 삼권분립에 따라 법으로 정의를 판단하는 사법부가 있어서 수많은 판사들이 있다.

이들이 하는 일: 정의를 집행하는 것

왜 이렇게 할까? 정의가 집행되지 않으면 사회와 국가가 아수라장이 된다. 누구나 이것을 알기에 이들이 내리는 판결에 승복하며 받아들인다.

인간은 정의의 개념을 어디서 받았을까? 그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받았다. 그래서 누구나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면 정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알 수 있다.

3. 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을 영원무궁토록 지옥 불속에 넣으실 수 있을까?

법관들이 판결내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

바르게 행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 주고 바르게 하지 않은 사람에게 형벌을 주는 것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면 사형을 시키는 것이 정의이다.

횡령하면 배상하게 하고 그렇지 못하면 액수에 따라 감옥에 가두는 것이 정의이다.

우리 모두는 법원이 이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왜? 그렇게 해야만 선량한 시민들이 받을 뺨고 잘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도소/감옥에는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따로 구분되어 모여 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따로 모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회의 정의가 구현되고 법을 지키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은 무엇인가?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다(고전13:4-6).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고전 13:6)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지옥

성경의 하나님은 완전한 정의이시고 그 정의를 구현하시는 분: 그분께는 불의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정의를 집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법에 따라 살지 않은 사람들, 설계된 목적에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을 따로 모으신다. 그 장소를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한다.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다(마25:41).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사14, 겔28, 사람과 우주의 창조 이전에 과거의 영원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자신을 섬기도록 수많은 천사들과 영적 창조물들을 창조하셨다. 그중 가장 뛰어난 존재가 루시퍼. 그는 천사들의 삼분의 일을 데리고 본인 자신이 하나님을 넘어서는 존재가 되려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 반역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그와 그의 무리들은 일거에 쫓겨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지옥 불속에 들어갈 운명이 되었다.

그 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창조물들에게 자신의 온갖 지혜를 보여 주시기 위해(엡3:10) 우주 공간을 만들고 사람과 여러 창조물을 만들고 자신의 허락 하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마음껏 인간을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인간의 6000년 역사는 마귀와 그의 무리들이 온갖 노력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투장이 되었다.

그런데 이런 전투는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는다.

이것이 끝나고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온다. 새 예루살렘(계21:5).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지옥은 이렇게 마귀와 그의 천사들 그리고 그들을 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정의롭게 만들어 놓으신 특별 감옥이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 것이 참된 정의와 공의이다.

지옥의 특징

1. 뜨거운 불이다(눅16:24),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공활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만나이다, 하거늘, 천국 백성도 부활, 지옥 백성도 부활
2. 캄캄한 암흑이다(마8:12),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갚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3. 영원히 존재한다(계14:11),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4. 스스로를 확장하여 모든 자를 수용한다(사5:14),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은즉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리도다.』
5. 등급이 있다. 정의의 하나님
6.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 즉 거기서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갈 수 없다(히9:27).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누가 지옥에 가는가?

살인자, 간음하는 자, 횡령하는 자,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자 등이 떠오를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안 돼. 저런 사람은 지옥에 가야할 것 같아.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의 죄가 마음에 떠오른다.

성경의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까?

롬3:9-12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마귀의 지식들로 태어난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룰 수 없다.

즉 아무리 선하도 다 도토리 키 재기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선행과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의롭습니다!” 하고 말할 자가 없다.

롬3:23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의 모습: 인간의 어떤 종교 체제, 철학, 문화, 교육,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방법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서 지옥 불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인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주셔야 한다.

지옥에 간 사람들도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스템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 마련하신 시스템은 대신 속죄 시스템이다(Vicarious atonement).

창세기 시작부터 나오는 시스템

죄를 지은 자를 대신해서 죄가 없는 무언가가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서 하나님의 공의/정의를 만족시킴으로 죄 지은 자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희생 예물 제도가 확립되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양이든 소든 짐승을 가져와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면 그의 죄가 가려졌다.

구약 시대 4000년 동안 이 일 진행

그러나 염소와 황소의 피가 죄들을... 불가능(히10:4),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하나님의 의도: 이 모든 것은 예표이다. Perfect sacrifice가 온다.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

그래서 짐승을 죽여 피를 흘렸어도 믿음으로 한 사람들만 구원받음

왜 믿음인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빈부귀천, 인종, 남녀노소

누구나 회개 보고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는 것

믿음, 지식, 재산, 명예 없어도 소유 가능함

어떤 믿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창15:6)

아브람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크리스마스의 의미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씨를 주겠다(창3:15). 메시아

여자의 씨: 사람이어야만 한다. 왜? 짐승은 안 된다. 천사도 안 된다.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령님에 의해 마리아의 몸에 수태되어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마1:20). 처녀 탄생의 신비, 기독교의 핵심 교리

그분은 임마누엘(1:23)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인간의 모든 시험을 다 겪으시고 드디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십자가로 가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자기 어깨에 지고 지옥의 형벌을 다 당하시고 피를 흘려 죽으셔서

완전무결한 대신 속죄 희생물이 되셨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실 때에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셨다(요19:30).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을 속박하는 죽음의 권세에서 인간이 부활함을 몸소 보여 주셨다.

고후5:21,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공의 성취, 사랑 성취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핵심 메시지이다.

마1:21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옥의 락다운을 피할 수 있는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불법 가운데 수태되어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다 누더기, 쓰레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들을 대신해서 필을 흐리고 죽으심으로 나 대신 지옥 형벌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구원의 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합니다. 그분만 신뢰합니다.

요3:16을 믿습니다.

롬10:13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롬10:9-10

결론

2020년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시즌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코로나 락다운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지옥의 락다운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기에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 거기는 원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한 곳

원래 인간은 에덴동산에 거하도록 창조된 존재

바로 그런 세상,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거기에 들어간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이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귀한 복이, 가장 귀중한 복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한다.